

완도군 해양치유 활성화 가속도 신 해양관광시대

빅데이터 기반 해양치유 데이터 플랫폼 구축, 웰니스산업 특화도시 추진

완도군이 '신 해양 관광시대'를 열기 위해 민선 8기 공약 중 해양치유 관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양치유 분야 공약 사항으로는 ▲빅데이터 기반 해양치유 데이터 플랫폼 구축 ▲웰니스산업 특화도시 지정 ▲해양치유 스포츠 재활센터 건립 등이다. '빅데이터 기반 해양치유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은 내년 5월 시범 운영 예정인 완도해양치유센터를 통해 4차 산업 인공지능 기술의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범 운영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하나로 모으고 정리하는 1단계, 빅데이터로서 가치를 지니는 데이터들을 추출·가공하여 제공하는 2단계, 인공지능 분석 기능이 접목된 3단계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웰니스산업 특화도시 지정'은 최근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웰니스 관광지로서의 완도군의 위상을 강화하고, 해양치유 특화 웰니스 특화도시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완도군은 지난 7월 K-웰니스 브랜드 대상(해양치유 분야)을 수상한 바 있으며, 내년에는 해양치유에 특화된 도시로서 다양한 상품 개발과 함께 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지난 9월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해양문화치유센터, 청산 해양치유공원과 함께 2023년도 상반기에는 완도해양치유센터가 운영되면 웰니스



완도군 해양치유 프로그램 중 하나인 해변 필라테스.

<완도군 제공>

산업 특화도시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치유 스포츠 재활센터 건립'은 전지훈련으로 완도를 방문하는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실업팀 선수들이 겪는 부상을 해양자원을 활용해 치유하고 재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재활센터 건립은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으며, 해양치유센터 내부에 소규모 재활 시설을 도입하여 효능과 효과를 검증한 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완도군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

은 4차 산업이 연계된 신 성장 동력 산업이자,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이끄는 웰니스 산업, 스포츠 재활과 어우러진 스포츠산업의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현재 해양치유센터와 연계된 관광 상품 및 체험 프로그램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해양치유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해양치유가 더욱 활성화되고, 해양치유가 다양한 산업의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은누리에 축복을
무안 남악에 대형 트리
지난 2일
무안군 삼향읍
남악 중앙공원에 설치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붉을 밝혔다.
군은 유동인구가 많은
남악 중앙공원에
2020년부터
연말연시를 맞아해
대형 트리와
주변을 밝혀 줄
스트링 라이트를
설치해오고 있다.
트리 주변에는
포토존을 설치했으며
반짝이는
색 조명을 설치해
시각적인 즐거움을
더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신안 천사섬 4000만 송이 애기동백꽃

섬 겨울꽃 축제 신안군 9일 개막

신안군이 9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압해읍 송공산 1004섬 분재정원에서 '섬 겨울꽃 축제'를 연다.

이번 축제는 애기동백꽃을 주제로 만든 플라워 월(flower-wall)과 플라워 아치((flower-arch) 등의 포토존이 운영되고, 인공제설기로 만든 '눈 내린 동백 꽃길 걷기', 새해 이루고 싶은 소망을 적어 나무에 묶는 '소원지 쓰기', 축제 기간에 작성한 엽서를 보관했다 내년 여름에 배달하는 '나에게 보내는 엽서 쓰기' 등의 체험행사도 진행된다.

또 축제 기간에는 분재정원 내 저녁노을미술관에서 '겨울 풍경 그림 전시회'가 열리고, 작은 동물원 주위에서는 압해읍 관광협의회에서 먹거리와 기념품도 판매할 예정이다.

축제가 열리는 분재정원 내 3km에 이르는 애기동백 숲길에 식재된 애기동백나무 2만 그루는 개화해 분재정원을 붉게 물들이고 있으며, 내년 1월까지 4000만 송이의 애기동백꽃이 관광객에게 화할 불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10여 년 동안 진행된 섬 겨울꽃 축제가 이제는 전국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겨울철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했다"면서 "신안군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하얀 눈 속에 핀 새빨간 애기동백꽃을 보며 마음에 위안을 얻고,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름다운 다도해 바다정원을 조망할 수 있는 송공산 '1004섬 분재정원'은 5만여 평에 분재원과 수목원, 초화원, 산림욕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700여 점의 분재와 소나 조각품을 전시하는 등 연간 20만 명이 방문하는 신안군의 대표 관광지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송공산 분재공원 애기동백 꽃길.

목포농협 조합장 선거 앞두고 혼탁·과열 조짐

조합원·퇴직동우회원 등 현 조합장 고발...조합측 "네거티브 강력 대응"

목포농협이 내년 3월 8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장을 고발하며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조합 측에서도 네거티브 목적의 비방이라며 이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벌써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목포농협측이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루머로 전혀 사실이 아니며 허위 사실에 근거한 고발 또한 비방으로 강력 대응한다고 나서 결국 법정에서 시비를 가릴 전망이다.

목포농협 조합원, 준조합원, 퇴직동우회원 일동은 지난 7일 목포경찰서 앞에서 목포농협 조합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의법처리를 바란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업무상 배임과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업무방해 등을 골자로 고발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목포농협은 입장문을 통해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내용은 내는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비방의 목적이며 고발 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성실히 임할 것과 네거티브 목적의 비방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합장 선거 예비후보자들께서는 조합

원의 권익증진과 목포농협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공명정대한 경정을 촉구했다.

목포농협 관계자는 "기자회견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전혀 사실과는 다른 내용으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네거티브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사실무근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고 했다.

그는 이어 "목포농협은 현 조합장 취임 이래 1900여명의 조합원을 위한 영농경영비 절감을 비롯한 농가소득 창출 확대와 조합원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농협설립 목적인 농업인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진도군, '극단 선택' 예방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프로그램

진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생애주기별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노인 우울증 예방을 위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 심리 치료 예방 프로그램 '내-안-애(愛)'를 운영하고 있다.

'내-안-애(愛)'는 '내가 안아주고 사랑할게'의 줄임말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스트레스 관리법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방법을 주제로 7회에 걸쳐 프로그램으로 운영,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살 고위험군 어르신들을 집중

적으로 관리해 노인 자살 문제를 예방하고 우울감 감소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또 중·고등학교 학생과 직장인으로 찾아가는 생명사랑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오는 14일(수)에는 진도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생명사랑 샌드아트 공연도 실시할 예정이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든든한 지키자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